

5·18 영화 '화려한 휴가' 엑스트라들의 애환

대사 없어도·얼굴 안 나와도... 좋은 영화위해 '열정의 한컷'

"레디~ 액션!"

감독의 목소리가 메가폰을 타고 세트장에 울려 퍼지기 무섭게 무장 군인과 시민군이 대치했다. 상대편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그들의 눈에서도 어느덧 불꽃이 튀는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엑스트라(extra). 관객들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배경'일 수 있었지만, 요즘 광주 첨단 야외 세트장에서 5·18 영화 '화려한 휴가'를 찍고 있는 보조출연자 150여 명의 하루는 주연 못지 않게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다.



영화 '화려한 휴가'의 촬영이 한창인 광주 첨단 야외 세트장에서 보조출연자들이 촬영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가을 햇빛이 따가운 25일 오후. 무거운 전투모에 두터운 전투복을 입은 이성용(24)씨는 진땀만 뻘뻘 흘렸다. 일부 동료의 뒤는 행동에 계속되는 '컷'이 나고, "다시 가자"는 감독의 사인이 떨어진 것이 벌써 여섯번째.

'카메라 바로 보지 말 것' 화면 안에서 절대 튀지 말 것'이라는 철칙을 어긴 댓가는 혹독했다. 아침 나절에 해치울 수 있었던 장면이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끝났던 것이다.

늦은 점심은 먹는 그들의 표정은 밝았다. '국경의 남쪽' '아이스 케기' '비열한 거리' 등 올해에만 10여 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는 이양순(여·43)씨. 경력 7년 차인 그녀는 "얼굴이 크게 나온다거나 대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

첨단 야외세트장 계엄군·시민으로 150명 열연

은 영화에 출연할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보조출연자 중에는 이씨처럼 '그저 좋아서 하는' 영화 마니아나 전문적인 엑스트라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지 않는다. 특별한 대사나 동작이 없는 만큼 '배우지광'은 기피한다.

가장 힘든 것은 '시간'과의 전쟁. 장거리 촬영이 있는 날이면 새벽 잠을 포기하면서 집을 나서야 하고, 꼬박 12시간 넘게 기다려 1시간만 촬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 장면만 3시간 가까이 찍을 때도 있다.

김선정(여·25)씨는 "십자수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

들도 있지만 촬영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인내다 계속되는 촬영에 몸이 피곤하다 보니 대부분 수다나 잠자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전했다. 분장도 쉽지 않은 작업. 남자 출연자의 경우 수업을 붙이거나 갑옷을 입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추운 겨울에 여름 촬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일당은 하루(12시간 기준) 3만 원선으로 현장에서 지급한다. 보조출연자 공급업체인 POP의 장현진(34)대표는 "보조출연자들의 열정이 보태져 잘 찍고 대박 나는 작품도 많다"고 말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이끼로 만든 식물 인형 만나세요"

25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이끼로 만든 식물 인형 '토피어리'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신기한 듯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토피어리협회 광주지부가 개최한 이번 전시회는 29일까지 계속된다. /위적랑기자 jrwi@kwangju.co.kr

25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이끼로 만든 식물 인형 '토피어리'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신기한 듯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토피어리협회 광주지부가 개최한 이번 전시회는 29일까지 계속된다. /위적랑기자 jrwi@kwangju.co.kr

옛 광주시청 부지에 대형 유통업체 입점

동구청 '필하임마트' 허가

옛 광주시청 부지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선다.

광주시 동구청은 25일 "계립동 505-900번지 옛 광주시청사 부지 2천400여평에 대해 '필하임마트' 입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주)필하임플러스'(이하 필하임·대표이사 리수호)가 건설할 '필하임마트'는 연면적 7천953평 규모의 5층 건물로 43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필하임'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옛 광주시청의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필하임 마트'는 인근 대인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건립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대인시장 상가변영회'(회장 정범수)는 최근 ▲매장 운영 인력의 70%를 광주 시민으로 고용한다 ▲'필하임'은 입점할 매장을 대인시장 측에 미리 통보한다 ▲대인시장이 지역특산물의 납품을 요청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한다 등의 조건으로 '필하임 마트' 입점에 찬성키로 했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북구 '자미축제' 퇴출

광주시 북구는 25일 "자미(紫微)축제에 대한 직원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비유에 비해 인지도 및 효용이 낮아서 올해부터는 열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년간 '자미축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주민체육행사와 노래자랑 등은 폐지했으며, 북축, 농악놀이, 시조창, 학술토론회 등의 행사는 5·18마라톤 대회와 꽃축제 등에 편입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경제살리기에 예산 써달라" 46%

광주시 홈페이지 설문 "투자순위 일자리 창출"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예산을 써 주시오"

최근 내년 예산편성에 착수한 광주시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 주문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시 홈페이지에 산 참여방을 통해 응답한 389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179명(46%)이 '지역경제 분야에 관심을 보여 줄 것을 요청, 지역 경제 활성화가 민선 4기의 제1과제임을 실감케 했다. 시민들은 다음으로 문화관광(19%), 도시교통(13%), 사회복지·환경복지(11%) 등에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로 지역 경제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실업 대책(37%)과 첨단산업 육성

(25%), 중소기업육성(22%) 순이었으며 문화관광분야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41%를 차지했다. 도시교통 분야는 대중교통 활성화(27%)와 공공 주차장 조성(21%), 도로개설(19%) 및 시설 확충(19%)에,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 복지(40%)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환경복지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컴퓨터 공원조성(31%)과 도시녹지화(29%) 등을 우선 투자할 사업으로 꼽았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예산편성 시민설명회때 제기된 의견 등을 예산편성 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참여 예산제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oksan Odi' (녹산오디) featuring images of the product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and pricing.

Advertisement for 'MAN pride' (맨프라이드) featuring a muscular man and text promoting fitness and health benefits.

Advertisement for 'Little China' (리틀차이나) language school,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about HSK exam preparation.